실용과 주체

Pragmatism and Identity

김성우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ung-Woo

어느 설계사무소 소장의 얘기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현재 현상설계로 나온 몇 개의 건물 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무실을 닫기가 쉽나요? 닫을 수 없으니 현상에 떨어질꺼라 생각하면서도 또 해보는 겁니다. 또 꽝이 나오겠지만 안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 우리나라 설계사무소는 아마 80%정도는 문닫을 겁니다. 설계사무소하다가 문닫으면 연금이 있나요, 보험이 있나요. 그냥 거지되는 겁니다. 나 뿐인가요, 우리 사무소 직원들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 차마 해고를 못하겠어요. 아마 몇년 사이에 건축계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지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건축은 틀림없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임진난 이후 사람들이 집지을 여유가 없으니까 목수, 기와공 등 기술자들이 일이 없어 전직하고 임진난 전까지 이어져 왔던 양식이나 기술이 전수되지 않아 임진난 전후 건축양식이 달라지듯이 앞으로 몇 년사이에 우리나라 건축계도 전문성의 단절이 생길 겁니다. 나라가 건축경기를 빨리 일으켜야 돼요. 건축경기가 살아야 다른 모든 것이 삽니다. 그런데 왜 토목공사는 일으키면서 건축경기는 죽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또 한 번 광주사태 같은 것 일으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나이 오십줄 넘어서 이제 건축 좀 알만하고 좀 제대로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되니 앞으로의 내 인생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사무실 문 안닫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보면 결국 그나마 있던 가산 다 탕진할테고 나는 정말로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눈에 보여도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서 현상설계공모만 나오면 또 한 번 덤벼보게 됩니다. 나같은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어요. 어느 현상설계 발주 낸 관공서는 지침서를 100개 만들어 놓았는데 200명이 몰려와서 할 수 없이 주소만 쓰게 하고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그냥 돌려보냈대요. 제발 좀 여기저기 얘기해서 건축경기 좀 살려놓으라고 하세요. 이 정부가 아직 뭘 몰라서 토목공사 가지고는 경기부양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원시사회나 열대밀림지역 같으면 나가서 과일 따 먹고 시냇물 먹고라도 살겠지만 여기야 전기세, 수도세, 자동차 유지비, 애들 학비하며 나가는 것은 예전과 똑같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수입만 딱 끊어지는 겁니다. 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빚쟁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빚을 얻으려 한들 누가 돈 빌려주나요. 그냥 굶게 되는 겁니다. 요새는 술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안풀려요…"

이러한 얘기가 어디 한사람의 설계사무소 소장만의 이야기이겠는가? 설계사무소 사람들 전부 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얘기가 어디 건축설계사무소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는가? 건설계 전부의 이야기일 것이다. 아니 한국 산업계 전체의 이야기이고 사실인즉 한국인 전체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얘기이다. 지금 현재는 먹고 살 것이 있어도 몇 달앞의 상황이 불투명한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이고 또 앞으로 몇년 또는 평생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자기만 먹고살고 온나라가 굶주리는 것이 배부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는 그 끝모르는 수렁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나 어느 정치가가 1년 또는 2년만 견디면 된다고 하는 말을 액면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또 믿은들 내가 거지가 된 다음에 경기가 호전된들 나보고 무엇을 어쩌란 말인가. 지금 우리는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나 언제까지나 더 아프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먹고살기' 이고 '살아남기' 이다. 건축의 양식과 가치와 이념과 어쩌구 저쩌구보다는

'먹고살기' 이고 '살아남기' 이다.

IMF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물론 두가지 모두이다. 위기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해당되어 버린 얘기이다. 그러나 도약의 기회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른다. 기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국가부도는 이미 난 상태이되 완전히 부도나면 채권자가 빌려준 돈 못받을까봐 적당히 목숨을 유지시켜 주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IMF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 우리는 배고프고 마음 아플 때 한쪽 구석으로 칼을 갈아야 한다. 처절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남의 눈에 비쳐질 때 그들의 동정을 구하지 말고 나만의 칼을 갈고 있으면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IMF는 한국이 못나서 당한 것이다. 동시에 IMF는 아시아 경제전 내지 한국에 대한 견제세력과 세계경제적 갈등관계 속에서 당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고래싸움에서 터져버린 새우등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떤 칼을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끝날지 모르고 영원히 당하기만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으며 그 원인과 처방까지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고 희망마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실용정신이다. 우리는 아직도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 한다. 아직도 철저한 장사꾼이 되기보다 양반적인 장사를 하고 있다.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체면과 겉치레와 염치와 명분을 확보해야만 하는 양반이다. 아무도 인정안해주는 명분병과 양반병을 아직도 갖고 있다. 고급만년필, 시계, 화장품 등 모든 체면과 명분유지비로 가산을 탕진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모두 우리보다 훨씬 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한다. 한국기업가는 명분만 주면 예외없이 실리를 양보한다는 것이 일본기업가의 말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몇 백년 앞서서 에도시대부터 상업유통의 기반과 실리적 장사꾼의 입지를 강화시켜왔고 미국은 민족적 배경에서부터 앵글로색슨적 실용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우리들은 조선조 500년의 선비적 명분주의가 지금까지 배여있는 사고를 하고 있다. 이번의 IMF를 통해 실리주의와 실용정신을 못 배우면 한국은 IMF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

또 한가지 배울 것은 주체정신이다. 이것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혼동될 이름이 아니다. 한국인은 주체적이고 개인적 자기인식의 정도가 약하다.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칠판만 바라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시험보고, 졸업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기에 타성화되어버려 교육으로 자기만의 견해구축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인 것을 모른다. 그렇게 자라난 한국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견해싸움에서 진다. 정상회담에서의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비해 주체적 견해가 약하고 국제적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각료들은 미국 각료들보다 주관적 견해가 약한 것을 신문을 보아서도 알지 않는가? 한국 유학생은 미국학생에 비해 자기만의 견해가 취약하고 토론에 약하다. 한국학생이 일본학생보다 생각이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 교수의 말이다. 지금도 한국대학의 교실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 교수가 토론을 유발시키지 않아서이기 보다도 학생이 입을 다물어서이다. 주체적 자기인식의 필요성과 스스로의 생각에 자신을 갖게끔 하는 주체정신을 배우지 못하면 IMF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가 매우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이어서 당장 배고픈 실직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까 싶은 것은 당연한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나를 배고프게 한 원인을 찾되 그 뿌리를 캐낼 때까지 철처하지 못하면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원인을 가까운데서만 찾으면 그것이 해소되는 것도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치유는 되지 않는다. 나를 배고프게 한 원인의 극복은 나 자신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없다.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생긴 문제를 고쳐야만 가능하지 가지 잘라내기나 접붙이기로는 되지 않는다. 실용주의와 주체적 감각은 바로 우리 정신의 뿌리에 생겨 있었던 무서운 병이었다. 건축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건축설계도 시공도 실제적 구체성은 취약하고 명분 챙기기에 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설계하는 사람은 스타건축가만 꿈꾸고 실무적 처리능력은 약하고 시공하는 사람은 상세부의 철저 시공은 버려두고 결과적인 넘어가기와 명분적 돈계산으로 일을 매듭해온 것도 그 병의 결과이다. 외국설계와 시공에 비해 자기상품 개발의욕과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 주체의식이 약하면 언제까지나 남의 상품 따라 만들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건축설계가 우리 상품 개발에 뒤늦고 남의 상품의 방식대로 나도 따라하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된다. 위기의 극복은 위기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위기의 원인은 반드시 나와 우리 속에 있는 정신적 뿌리에 생긴 병에서 연유된다. 실용주의와 주체의식이 취약하면 IMF의 근본적인 치유가 안된다. IMF의 아픈 대가를 치르고도 실용주의와 주체의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위기는 위기로만 끝난다. 앞서 언급한 설계사무소 소장의 뼈아픈 얘기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아픔의 치유는 한탄과 푸념으로만 되지 않는다. 자기 변화를 위한 방향생각과 실행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